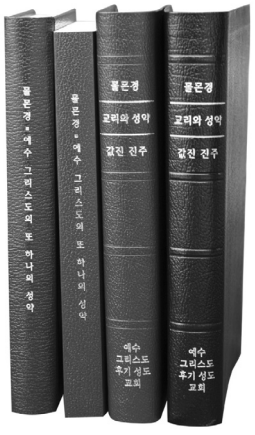
지역 소식

몰몬경 특집 기사

참된 하나님의 책



몰몬경 특집호를 맞아 지역 소식에서도 몰몬경 관련 기사를 준비했다. 그 첫 번째는 한국 교회 역사 위원회에서 제공한 몰몬경 번역에 대한 기사이다. 여러 자료와 고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상세한 몰몬경 번역 과정을 전하는 이 기사는 앞으로 석 달에 걸쳐 연재될 것이다. 이 기사 속에는 김호직 박사를 시작으로 수많은 신권 지도자들이 한국어 몰몬경을 출판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과 그 속에서 피어난 간증이 들어 있다.

또한 두 번째 특집 기사는 회원들의 몰몬경 간증이다. 몰몬경을 통해 개종한 이야기, 몰몬경을 읽고 재활동화 된 이야기 등 저마다의 간증 속에는 몰몬경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들어 있다. 간증을 나눈 이들은 한 목소리로 몰몬경이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말한다. 이 작은 책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는지를 간증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는 특집호 이후에도 몰몬경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계속 모집하여 한국 교회 웹사이트(lds.or.kr)를 통해 꾸준히 소개할 계획이다. 자신의 간증을 보내고 싶은 독자는 aron1979@hanmail.net로 간증과 사진을 보내거나 02)2232-1441(내선: 564)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한국어판 몰몬경, 희생과 노력의 결실

대부분의 한국 성도들은 한인상 장로가 젊은 시절에 선교 사업을 하면서 불굴의 노력을 통해 몰몬경을 한국어로 번역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한인상 장로는 1964년 2월부터 1966년 2월까지 한국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한 장로는 1965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간염을 치료하면서 몰몬경의 대부분을 부산 동구 지부에서 번역했다. 한 장로가 선교 사업을 마친 후에도 색인과 상호 참조를 만들고 출판과 인쇄 상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여러 해가 필요했다. 드디어 1967년 4월에 몰몬경이 출판되었다. 몰몬경은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재인쇄가 되었으며 1992년에는 그 수가 백만 권을 넘어섰다. 새로이 개정된 몰몬경은 2005년에 출판되었으며 현재 한국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이 몰몬경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몰몬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려는 노력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 기원이 김호직 박사에 이르게 된다. 김 형제는 코넬 대학교에 유학 중이던 1951년 7월에 개종했다.[1] 그는 그 해 9월에 귀국했고 부산에서 미군들의 영향으로 개종한 몇 안 되는 성도들과 합류했다. 김 형제는 1953년에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 되었으며, 1955년에 한국 지방부 회장으로 성별 되었다. 한국어로 된 교회 관련 책자가 전무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김 형제는 선교사들이 한국인들과 만나 전도할 때 사용할 소책자와 유인물을 번역하고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한국어로 된 성경은 있었으나 후기 성도 경전은 없었다. 일본 도쿄에 본부를 둔 북극동 선교부의 회장으로서 당시 새로이 부름 받았던 폴 앤드러스 회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1956년 2월에 김호직 박사가 도쿄에서 열린 유네스코 지역 총회에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956년 2월 29일 수요일, 로버트 슬로버 회장(미군 지방부 회장 겸 책임자)과 내가 김 회장님이 묵고 있던 호텔로 찾아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선교사들이 묵을 적절한 숙소를 4월까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으며, 저는 그때까지 선교사들을 파견할 준비를 마치겠다고 그분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셉 스미스의 간증' 소책자 번역을 이미 마친 상태라 서울에서 소책자를 출판하자는 데에 합의를 했으며, 김호직 박사에게 번역 위원회를 구성하여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탈매지 박사의 신앙 개조를 번역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2]

1956년 4월 20일, 일본에서 온 돈 포웰 장로와 리차드 데튼 장로가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다. 그 뒤로 몇 달 사이에 선교사가 더 도착하여 선교사 수가 9명으로 늘었으며, 9월에는 한국인 최초로 이영범 형제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선교사가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1957년 1월 25일에 서울을 방문한 앤드러스 회장은 인쇄기를 가지고 왔다.[3] 1957년 3월, 번역 담당에 장세천 형제, 타자 담당에 이정순 자매, 인쇄 담당에 정대판 형제로 하여 한국 지방부 번역실이 조직되었다.[4] 김 박사와 장세천 형제가 몰몬경 번역에 착수한 때가 바로 이때였다. 1957년 5월 6일, 폴 앤드러스 선교부 회장은 장세천 형제를 몰몬경 번역자로, 김 형제를 번역 감독자로 공식적으로 성별했다.[5] 장 형제는 일본어 몰몬경과 영어 몰몬경을 참고로 하여 번역을 시작했다. 일본어에 능통했던 장 형제에게는 영어 몰몬경만 보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일이 쉬웠다. 그러나 장 형제가 1959년에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브리검 영 대학교로 유학을 가면서 번역 작업은 중단되었다.

그 즈음 홍병식 형제가 군 복무를 마치고, 김호직 박사의 요청에 따라 번역 작업을 이어받았다. 지방부 회장으로 새로 부름 받은 엘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는 홍 형제를 몰몬경 번역자로 성별하라는 지시를 제일회장단에게서 받았으며, 1959년 8월 23일에 성별했다.[6] 홍 형제는 이 부름을 받을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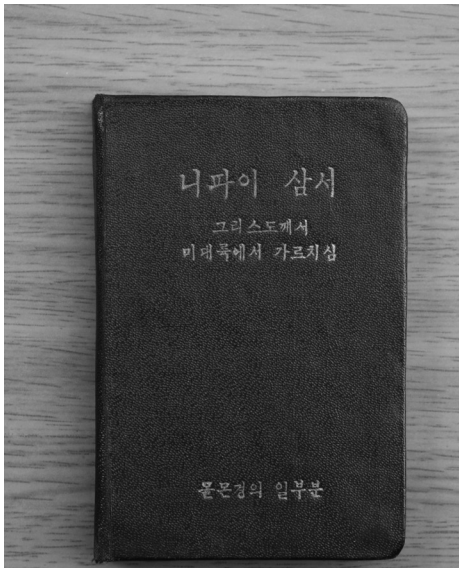
"실제적인 번역을 시작하기 전에 번역을 어떤 스타일로 해야 할지에 관해 김 박사님과 긴밀히 상의했습니다. 김 박사님, 이호남 형제님과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번역에 관해 장시간 논의하고 여러 번 기도로 간구한 끝에 우리는 킹 제임스 성경

스타일로 번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가 킹 제임스 성경과 그 경건한 문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7]

김 형제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인 1959년 8월 31일에 세상을 떠났다. 홍 형제는 번역을 계속하여 지금은 고인이 된 아내, 이정순 자매를 서기로 두고, 일본어와 영어를 다 구사하는 장점을 살려 1년 반 이상의 시간을 들여 번역을 했다.[8] 1961년 초에 홍 형제는 번역을 끝냈다.

이영범 형제와 이호남 형제가 교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처음에 도움을 주다가 1961년 11월에 이인순 형제와 와델 장로, 브루스 그랜트 장로가 위원회에 합류하여 힘든 교정 작업을 주로 도맡아 했다. 이인순 형제는 개종할 때 영어 몰몬경을 깊이 공부했던 회원이었다. 그는 개종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다.

"두 미국인 선교사 포웰 장로와 데튼 장로가 일본을 떠나 한국에 도착했던 1956년 4월에 저는 교회에 처음으로 참석했고, 우리는 통역자인 홍병식 형제와 함께 작은 집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게일이 카 장로가 일본에서 도착했습니다. 얼마 후 포웰 장로와 데튼 장로가 귀국했고 우리는 카 장로와 킴볼 장로와 함께 작은 집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0월에 카 장로는 파란색 표지로 된 영어 몰몬경을 제게 주면서 침례 받기 전에 모두 읽어 보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은



초기에 번역된 니파이 삼서

일에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듯 저는 읽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와서 영어 몰몬경을 눈 여겨 보면서 감히 영어 몰몬경을 전부 읽어보겠다는 말을 어떻게 꺼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 장로가 제게 침례를 주고 싶지 않아서 이런 힘든 일을 시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읽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는 영한 사전을 옆에 두고 영어 몰몬경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책을 가져다가 한 장을 세 겹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줄마다 첫째 열에는 모르는 영어 단어를 적고, 둘째 열에는 발음 기호를 적고, 셋째 열에는 그 의미를 한국어로 적었습니다. 3주 만에 몰몬경을 다 읽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신입생이었고 중학교 시절부터 내내 영어 과목에서 수를 받았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저는 영어 몰몬경을 다 읽었다고 카 장로에게 말하면서 공책을 보여주었습니다. 다 읽었다는 사실을 카 장로는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때는 11월이었고 날씨는 이미 아주 추웠습니다. 그 때 카 장로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연못이나 강에서 침례를 줄 수도 없고, 공중 목욕탕에서 침례를 주는 것도 모양이 좋지 않고, 개인 주택 욕조는 너무 작고 낮아서 형제님을 침례 주려면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고, 카 장로는 제게 침례를 주려는 의사가 없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저는 날씨가 추워도 한강에 가서 침례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고 카 장로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강에 가니 너무 춥고 바람이 강했고, 강가에는 강물이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동생 이정순 자매는 카 장로에게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서 얼어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 다음 해 홍병식 형제는 내 동생과 결혼을 했습니다."[9]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이 기사는 한국 교회 역사 위원회에서 제공합니다.〉

주

1. *내 양을 먹이라*, 김호직 박사의 생애와 업적, 한국번역 출판사,2002년 24쪽.
2. *Church Beginnings in Korea* 1955-1962 Part One-A, Paul Andrus, 2007. http://www.morumon.org/returnedmissionariesandrus4.htm
3. *Church Beginnings in Korea* 1955-1962 Part One-B, Paul Andrus, 2007.
4. *Korean Church 50 Year History Opens the Future*, 2005, 135쪽.
5. 같은 책, 137쪽.
6. 같은 책.
7. 홍 병식 형제가 로널드 케이 닐슨 형제에게 보낸 이메일, 2011년 1월 10일.
8. 같은 책.
9. 이인순 형제가 로널드 케이 닐슨 형제에게 보낸 이메일, 2011년 1월 16일.

내 인생의 몰몬경

몰몬경을 다시 읽으며

나는 4월부터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경전 읽기를 멈출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과에 가는 것을 미뤘다. 점차적으로 내 영성과 일상에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분별력과 통찰력이 약해지고 이해력이 저하되었다. 몰몬경을 통해서 원리를 찾고 적용하는 과정이 없어지다 보니 나는 서서히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 답답함은 곧 나의 성품에도 큰 영향력을 미쳤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포용력과 사랑, 온유함과 배려심도 상실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빛이 꺼져 가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김삼순 자매

나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다. 그리고 결론을 얻었다. 그것은 내가 몰몬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서둘러 안과에 가서 진단을 받았고, 그토록 쓰기 싫었던 돋보기안경을 착용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밀쳐 놓았던 몰몬경을 다시 펼쳤다. 그 순간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 지면서 불안과 초조와 조바심들이 씻겨 나갔다. 그 후로 내 삶은 좀 더 향상 되었으며 온전한 행복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또 다시 영성이 살아나기 시작했으며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다. 경전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축복들에 대하여 나는 생각한다.

나는 몰몬경을 읽는 것은 단순한 지침과 원리이지만 그 단순함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전주 스테이크, 전주 와드, 김삼순 자매〉

책상 위의 몰몬경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소개로 교회를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 영어 회화 수업은 두 번만 듣고 바로 침례 토론을 받았다. 나는 비록 어렸지만, 사랑이 많은 잘 준비된 선교사님들 덕분에 토론을 하면서 지금 가르침 받고 있는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선교사님들은 몰몬경을 주면서 이것을 읽고 기도해 보겠느냐고 물었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집에서 열심히 경전을 읽었다. 그리고 1999년 3월 13일 침례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내 신앙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가정 형편은 어려워졌고, 부모님의 사이도 좋지 않아 매일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다. 그러던 중에 복음을 알게 해 준 친구는 지방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단짝 없이 교회에 나오려니 심심하고 외로웠던 나는 교회와 점점 멀어져 갔다. 하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는 동안에도 나는 매일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덕분인지, 우리 집은 짧은 시간 동안 기적처럼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고, 부모님의 사이도 좋아져서 화평이 넘치게 되었다.

대입 재수를 하던 어느 일요일에 나는 여느 때처럼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책장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던 몰몬경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침례 토론을 할 때 선교사님이 선물해 준 바로 그 몰몬경이었다. 조심스럽게 펼쳐서 책장을 넘기다가 내가 색연필로 표시해 두었던 구절인 앨마서 32장 21절을 발견했다. "또 이제 내가 신앙에 관하여 말한 것같이-신앙이란

박은영 자매

사물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에게 신앙이 있으면 너희는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느니라." 그 구절을 읽었을 때 내 가슴은 뜨거워졌고, '아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 신앙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었다. 나는 그 다음 주 안식일부터 교회에 참석하여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안다. 내가 잃어버렸던 성신의 느낌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몰몬경 때문이었다. 나는 몰몬경을 상고할 때 주님의 영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중랑 와드, 박은영 자매〉

즐거운 몰몬경 읽기

나는 이번 EFY를 통해서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몰몬경을 제대로 읽어 본 적이 없었다. 청녀가 되어서 스테이크 청녀 회장단에서 계획한 몰몬경 읽기를 완수해보았지만 그것은 몰몬경을 상고하는 것이 아닌 목적 달성을 위한 단순한 글자 읽기였다. 그런데 이번 EFY를 통해서 배움의 중요성을, 특히 경전을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해서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EFY 기간 중에 몸과 마음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몰몬경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EFY 기간 중 우연히 펼쳐 읽게 되었던 니파이후서 32장 3절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라 하였노니,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 주심이니라."는 내가 무엇 때문에 몰몬경을 읽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해 주었다. EFY의 마지막 날 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매일 몰몬경을 읽고 있다. 마음속으로 결심한 분량을 읽을 때마다 하루하루가 새롭고 활기차졌다. 몰몬경을 읽는 시간이 이렇게 재미있고 즐겁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놀라워하며 몰몬경의 축복에 감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었다. 나는 몰몬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살아 계심을 느낀다.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종석이라는 사실을 간증한다.

정경아 자매

〈광주 스테이크, 농성 와드, 정경아 자매〉

몰몬경으로 변회된 삶

내게는 선교 사업 부름장을 기다리는 시간이 꽤 길었던 것 같다. 그것이 늦어지는 데에는 여러 사건이 있었고, 그 결과 많은 시련이 뒤따랐다. 불신의 마음이 들었으며 실망과 불평, 그리고 이기심이 내 마음을 감싸며 선교 사업을 결심했을 때의 간증이 서서히 식어 갔다. 그 시기에도 나는 습관처럼 몰몬경을 조금씩이나마 읽고 있었지만 감동을 받거나 영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읽어만 갔다. 그럴수록 내 마음은 더 가난해졌다. 나는 더욱 슬퍼졌고 우울했다. 나는 제발 이러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답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럴 때에 청년 대회가 열렸고, 나는 그저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기에 그 모임에 참석을 했다. 그런데 첫날부터 변화가 왔다. 대대장 형제님은 하루 열기 모임 시간에 행복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토론을 준비해 줄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하겠다고 말을 했고, 당황함도 잠시, 가슴 한 구석 예전에 몰몬경을 읽으며 스쳐 지나갔던 구절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사람들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 친구들, 즐거웠던 추억들, 무엇보다 사랑하는 동생과 어머니가 생각났다. 행복하고 편안했다. 나는 몰몬경 구절들을 다시 찾아 보았다. 내가 최근에 읽었던 앨마서의 구절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과 자유와 대의를 위해 작은 병력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결의를 다졌던 니파이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정말 영이 뜨겁게 타올랐다. 그리고 자신을 다시 돌아보았다. 선교 사업을 준비하면서 겪게 된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서 나는 니파이인들처럼 주님께 의지하며 내 결심을 확고히 해봤던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주님의 사업, 그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 강한 신앙을 발휘했던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순간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펐지만 강한 희망 또한 함께했고 주님의 큰 사랑을 느꼈다. 다음날 하루 열기에서 내 간증과 준비했던 토론을 나누면서 나는 영을 느낄 수 있었고 행복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몰몬경을 읽으려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려 노력했을 때도 영이 함께 하였다. 그리고 선교 사업에 대한 더욱 확고한 간증과 몰몬경에 대한 간증이 생겼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 몰몬경은 주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전해 주며 그분의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책이다.

〈광주 스테이크, 충장 와드, 신현범 형제〉

몰몬경을 상고하며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닌, 가족 경전 읽기와 몰몬경 이야기 등이 너무나 익숙한 회원 자녀다. 그 때문에 스스로 몰몬경의 필요성과 중요함, 그리고 간절함을 느끼기가 힘들었다. 몰몬경을 다 읽고 났을 때 주님의 영이 매우 크게 다가왔다는 개종자들의 경험을 나는 할 수 없었기에 낙담했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경험을 한 회원들이 부러웠다. 그들의 믿음이 부러웠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부러웠다.

그러던 중에 불교를 믿는 친구 중 한 명이 불경 한 절 읽고 절하고, 또 한 절을 읽고 절하면서 불경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나도 간절히 기도 드리며

김선하 자매

내게도 주님의 큰 영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했다.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나는 단순히 경전을 '읽는' 것이 아닌 '상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 느낌에 따라 몰몬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내 이름을 넣어서 읽고, 전후로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읽어 가면서 어느새 몰몬경이 참됨을, 또 주님이 곁에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몰몬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활에서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나는 우리가 성신의 속삭임에 따른다면 경전을 상고하게 될 것이고, 또한 행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중랑 와드, 김선하 자매〉

김준 형제

내 삶의 지침서

몰몬경은 내 삶의 지침서나 다름 없다. 나는 힘들 때마다 몰몬경을 읽으며 위로를 받았고, 의문을 가질 때마다 몰몬경을 읽으며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어떤 때에는 몰몬경을 읽으며 하루를 보내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는 회개하기도 했다.

어느 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다.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간구했다. 그리고 조용히 명상하다가 몰몬경을 읽어야겠다는 느낌을 받고 앨마서 7장을 펼쳤다. 그곳에서 찾은 앨마의 말씀은 마치 나를 위로하는 것 같았다. "또 이제 나는 너희가 겸손하며, 유순하고 온화하며, 쉽게 권함을 받으며, 인내와 오래 참음이 가득하며, 모든 일에 절제하며, 어느 때에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부지런하며, 영적인 것이나 현세적인 것이나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며, 너희가 받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기를 원하노라. 또 돌아보아 너희에게 신앙과 소망과 사랑이 있게 할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항상 선행이 넘치게 되리라. 또 주께서 너희를 축복하시고, 너희의 옷을 흠 없이 지키사, 너희로 결국에는 아브라함, 이삭 및 야곱과, 세상이 시작된 때로부터 있어온 거룩한 선지자들과 더불어, 그들의 옷이 흠 없음같이 너희의 옷이 흠 없는 채로 천국에 앉기에 이르게 하시고,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노라."(앨마서 7장 23~25절)

나는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몰몬경을 읽는 동안, 걱정이나 근심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몰몬경에서 나오는 선지자들의 간증과 모범을 통해 그분들처럼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몰몬경을 사랑한다.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제주 지방부, 제주 지부, 김준 형제〉

희망의 몰몬경

2006년은 나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안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야 했다. 교회 생활도 어려웠었다. 나의 영성은 완전히 무너져서 마음은 어둠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매일 읽던 몰몬경도 거의 한 달 동안 읽지 않았다.

어느 날 내가 존경하는 교회의 선배님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다. 그분은 나에게 몰몬경을 매일 읽으라고 권유하셨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 매일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몰몬경을 읽어도 아무런 느낌도 깨달음도 없었다. 그래도 나는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일 읽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날도 어김없이 몰몬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 몰몬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영을 다시 느끼게 되었고, 내가 갖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두 찾을 수 있었다. 나는 존경하는 선배님의 부드러운 권유가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2010년 2월 8일, 선배님과 다시 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정상우 형제님이 힘들어 할 때, 정말 몰몬경을 이번엔 꼭 읽어야 된다는 느낌이 왔어요. 그렇다면, 헝클어진 실타래가 하나씩 풀어지고, 다시 하나씩 감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막 헝클어진 실타래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빼야 할지도 모르는, 자꾸 엉키기만 하는, 풀어 보려고 해 봐야 자꾸 엉키기만 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형제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제가 몰몬경을 읽으시면 하나씩 차곡차곡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거라고 말했고, 형제님은 몰몬경을 열심히 읽으셨어요."

나는 몰몬경 자체가 우리의 삶을

정상우 형제

변화시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몰몬경은 다 죽어가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몰몬경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해 주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방문을 받으셨으며,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다신 한 번 알고 느끼게 되었다.

〈서울 남 스테이크, 강남 와드, 정상우 형제〉

교회로 이끈 몰몬경

난 몰몬경을 알기 전에 이미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다. 성경은 한 권이지만 그 해석에 따라 많은 교파로 나뉘어 자기 교회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직접 그들의 말을 들어보고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였다. 과연 이 지상에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교회가 있는 것일까? 있다면 그 교회는 어디일까? 많은 날들을 기도와 성경 공부에 매진하면서 눈물도 참 여러 차례 흘렸다.

여러 교회들을 '참된 교회'가 될 만한 가능성으로 분석하고 연구를 진행하던 중, 우연히 몰몬교라는 종교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몰몬경이 소설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믿는 몰몬교 또한 그릇된 종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소록을 찾아 인근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 상당히 적대적인 내용으로 교회를 비판하며 그 교회가 그릇된 것임을 밝히겠으니 토론에 응해달라는 도전적인 말을 적어 보냈다. 며칠 후 감독님에게 답장을 받게 되었는데 편지에는 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변이 아닌 개인적인 간증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몰몬경이 참되다는 단순한 선언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호전적이던 나는 이상하게도 그 간증을 읽으면서 왠지 그 분을 만나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몇 번의 편지 교환 끝에 감독님을 비롯한 몇몇 교회 회원들을 만나게 되었다.

감독님은 내게 여러 교회 서적들을 빌려 주시고, 특히 몰몬경 합본을 선물로 주시면서 모로나이의 약속대로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책의 참됨을 알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

처음 그 책을 집어 들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말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다. 혹시 이 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동안 찾아 왔던 주님의 교회를 찾게 된 것 아닌가? 마음 한 구석은 의심으로 채워져 있었으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몰몬경의 각 장들을 읽어 가면서 항상 마음 속으로 "이 책은 참된 것입니까?"라고 계속 하나님에게 물어보았다. 솔직히 이사야서가 인용된 첫 부분들은 읽기가 고역스러웠고 기대했던 특별한 응답을 받지 못했던 터라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했다. 하지만 앨마서를 읽어가면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책을 계속 읽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제3니파이 11장의 예수께서 미대륙 백성들을 방문하시는 장면에 들어서서는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는 듯한 강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아! 이것이 성신의 강한 증거로구나. 나는 너무나 기뻐 눈물이 났고 모로나이서를 끝으로 몰몬경을 다 읽었을 때는 "감사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었다. 어찌나 기뻤던지 몰몬경을 두 손에 들고는 껑충껑충 뛰면서 "나 참된 교회를 찾은 것 같아"라고 동생에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

이 몰몬경은 따지기 좋아하고 성경에 대해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교만에 빠져 있던 내게 겸손을 가르쳐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구주이며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 계시다는 부인 못할 간증을

주었다. 이 책 덕분에 내 인생은 바뀌었고 어려운 환경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훌륭한 자매와 성전에서 결혼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참된 교회를 찾게 해 달라는 나의 간절한 기도에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셨음을 깨닫는다. 도전적이고 비판적인 내 편지에 "순수한 간증"(앨마서 4장 19절)으로 반응해 주신 감독님과 몰몬경을 읽고 기도했을 때 "성신의 권능으로 ……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신]"(모로나이서 10장 4절)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배문철 형제〉

주님의 선물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를 몰래 다니곤 하였는데 그러한 내 행동에 할머니는 꾸지람을 하셨다. 그런 이유로 나의 신앙 생활은 2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가졌던 나의 믿음은 지울 수 없는 강한 인상을 내 삶에 새겼다. 만화책으로 된 성경 이야기를 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고한 확신이 있었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 당시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선한 삶에 대한 동경을 갖기도 했다. 그 후로 군대에 가서 그 당시 신학대학을 다니는 학생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복음에 대한 나의 갈증은 더해만 갔다.

그렇게 제대를 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아르바이트로 아파트 공사 일을 하다가 그만 7층에서 추락했다. 다행히도 안전망에 걸려서 살아났지만 나는 그 경험 후에 내 삶이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 잡혔다.

며칠 후 황혼이 물들 무렵, 여러 생각에 잠겨 길을 걷고 있던 나는 휘파람을 불면서 걸어오는 여성을 보게 되었다. 소녀 티를 갓 벗어난 그 여성을 보는 순간, 그분에게서 느껴지는 행복한 느낌의 원천이 교회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잠시 기다린 뒤 그 여성에게 교회에 다니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당황해 하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분에게 내가 왜 여기에 살고 있는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그리고 그밖에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그분은 망설이지도 않고 나의 모든 질문에 대답하여 주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것이 참된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분은 그러한 것을 알려주는 책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몰몬경을 나에게 주었다. 그분은 몰몬경을 읽어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였지만 난생 처음 접한 이 책을 보고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싶어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었던지 며칠 후 일을 하러 나가던 중에 옆집에서 나오던 그분과 골목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나는 몇 가지 질문을 더한 뒤에 그분의 권고를 받아들여 몰몬경을 읽기 시작하였다. 3일만에 다 읽었는데 마지막 모르나이서 반쪽 공간에 몰몬경이 참되다고 쓴 그분의 간증을 읽었지만 내 자신이 응답을 받기에 합당치 못하다는 두려움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였다.

그 다음날 오후 2시경 공부를 하던 중에 한 속삭임이 마음에 임했다. 네가 읽은 몰몬경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보지 않겠느냐!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 내가 읽은 몰몬경을 생각했을 때 이 경전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만들 수 없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순간 당황했으며 내가 왜 울어야 하는지 이러한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드렸을 때,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다고는 믿기지 않는 참으로 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맛보았다.

그 후 나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루 하루의 삶이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졌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다. 사람마다 몰몬경의 참됨에 대한 경험들은 다르다. 내가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받은 후로 20년의 시간이 지나갔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이것이 참되다는 확신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 ■

〈청주 스테이크, 천안 와드 최천규 형제〉

2011 복합 스테이크 특별 청년 대회 특집 기사

뜨거운 청춘, 행복을 노래하다

여름은 청년 대회의 계절이다. 이번 청년 대회는 강화도와 속리산 두 곳에서 열렸다. 강화도 청년 대회에는 서울 지역의 모든 스테이크와 수원 스테이크, 안양 스테이크, 인천 스테이크의 청년 독신 성인들이 함께 했다. 속리산 청년 대회에는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전주, 창원, 청주 등 7개의 스테이크와 순천, 울산, 제주, 홍성의 4개 지방부 청년 독신 성인들이 참석했다.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같은 날 열린 서로 다른 두 청년 대회는 장소와 활동은 달랐지만 대회를 통해 청년들의 행복과 사랑, 신앙과 간증이 싹텄다는 점은 같았다.

강화도에 울려 퍼진 행복의 웃음

서울 경인 지역의 청년 독신 성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강화도 청년 대회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마태복음 24장 42, 44절)라는 주제로 열렸다. 청년들에게 있어 준비란 다름 아닌 성전 결혼. 대회 활동들도 성전 결혼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들이 성전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초점이 맞춰졌다.

청년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대대를 구성했고 기존의 대대장과 부대대장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르며 대회 기간 내내 '가족애'를 다졌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함께 헤쳐 나가는 가족처럼 청년들도 각자의 대대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활동들을 즐겼고 서로의 간증을 나누었다.

이번 강화도 청년 대회에서는 예전에 보지 못한 독특한 활동들이 청년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 첫 번째가 '공개 라디오'와 '미드나잇 톡톡톡'이었다. 소나기로 촉촉해진 강화도의 밤을 낭만과 사랑으로 물들인 두 모임은 사랑에 대한 재미있는 사연 소개와 그룹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해변의 전쟁'이라 이름 붙인 갯벌 활동이었다.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석모도 갯벌로 들어간 청년들은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줄다리기, 밀어내기, 장애물 달리기, 꼬리잡기 등의 활동을 즐겼다. 서로의 얼굴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온통 진흙투성이였지만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는 청년들의 똑 같은 표정만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청년 대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Be Prepared 2011 서울/경기/강원 복합스테이크 청년대회

That they themselves may be prepared, and that my people may be taught more perfectly, and have experience, and know more perfectly concerning their duty, and the things which I require at their hands.

서울/경기/강원 복합스테이크 청년대회

Be
pared
Ready?

무도회도 기존과는 사뭇 달랐다. 정장에서 탈피해 '복고'라는 주제로 각자 개성을 살려 옷을 입고 스윙과 라인댄스를 즐겼다.

청년 대회 기간 중이었던 8월 14일은 안식일이었다. 이번 청년 대회를 가장 특별하게 만든 합동 안식일 모임이 바로 이날 진행되었다. 청년들은 전날의 열기를 뒤로한 채 정장을 갖춰 입고 주일학교와 상호부조회, 신권회, 그리고 성찬식에 참석했다. 성찬식에서는 청년들의 간증이 이어졌다. 좁은 건물과 불편한 의자였지만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성찬식 내내 경건함이 유지되었다. 70여 명의 형제 자매로 구성된 청년 합창단이 부른 '예수님 생각하오니'는 영적인 분위기를 한층 고취시켰다.

안식일 오후에는 'Talk about you'라는 모임이 진행되었다. 네다섯 명의 형제와 자매들이 각각 조를 이루어 돌아가면서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3박 4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자신을 알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만한 기회나 시간이 없었던 청년들에게는 그 시간이 단비와도 같은 순간이었다.

청년 대회의 마지막은 '노변의 모임'이 장식했다. 비록 모닥불은 없었지만 맑고 개인 밤하늘 아래 앉아 풀벌레 소리와 바람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과 영상, 서로의 간증을 나눌 수 있었다. 김창호 장로는 노변의 모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자 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신권 지도자로서 여러분이 발전하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격려의 말을 남겼다.

8월 15일, 오전부터 이어진 두 번의 세미나를 끝으로 막을 내린 강화도 청년 대회는 모두의 마음 속에 성전 결혼에 대한 의로운 소망과 복음에 대한 간증을 심어준 채 아름답게 끝났다.

〈기사 제공: 박세라 자매, 이상미 자매〉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더라

니파이후서 5장 27절의 말씀인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더라"는 속리산 청년 대회의 주제이자 대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분위기이기도 했다. 이번 대회는 청년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모든 활동이 진행되었다. 대대 이름도 행복해지기 위한 복음 원리들인 신앙, 소망, 사랑, 인내, 절제, 근면, 봉사, 겸손, 지식, 담대, 자애, 우정 등으로 지어졌다.

속리산 청년 대회의 첫날 저녁은 포크댄스 무도회가 장식했다. 서먹서먹함과 어색함을 깨는 데는 신나는 리듬에 몸을 맡기고 열심히 춤을 추는 활동이 제일이었다. 청년들은 무도회가 끝나갈 때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 친해졌다. 특히 대대원들 간의 우애가 돈독해졌는데 이 같은 과정은 다음 날 계획된 '베이스 활동'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

'행복으로 떠나는 여정'이라는 제목의 베이스 활동은 리하이 가족의 광야 여행을 체험해 보자는 취지로 대대 별로 속리산을 오르도록 계획되었다. 무르익은 여름의 속리산은 사정없이 열기를 뿜어냈고 햇살은 강렬하게 쏟아졌다. 자칫 힘든 활동이 될 수도 있었지만 전날 다졌던 대대간의 끈끈한 우애가 빛을 발했다. 청년들은 서로를 끌어 주고 격려하면서 산을 올랐다. 군데군데 마련된 베이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청년들은 특히 '쇠막대 체험'과 '강철 활 체험'을 통해서 유혹을 이겨내는 법과 가족을 위해 사냥을 했던 니파이의 사랑을 배울 수 있었다.

산행 후에 이어진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공통점을 가진 형제 자매가 짝을 이루어 발표를 하는 이색적인 활동이 펼쳐졌다. 하늘을 날고 싶다는 같은 소망으로 의자에서 공중부양 묘기를 선보인 커플, 구르기가 특기라서 현란한 구르기를 선보인 커플 등 특색 있고 재미있는 공통점과 발표로 대회장은 웃음 바다가 되었다.

셋째 날인 8월 14일에는 강화도 청년 대회와 마찬가지로 합동 안식일 모임이 있었다. 신권회와 상호부조회, 그리고 주일학교 시간에는 각 스테이크의 회장이 공과를 진행했고, 성찬식에서는 배덕수 장로의 말씀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안식일 모임 후에는 세미나가 이어졌다. 세미나의 주제는 성전 결혼이었다. 신권 지도자 부부들이 나와서 진행한 세미나에서는 성전 결혼의 실제적인 모습과 의미,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가 오갔다. 세미나를 들은 대구 스테이크의 박한나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어떻게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공과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충실하게 결혼 생활을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속리산 청년 대회는 마지막 날 오전에 열린 두 번째 무도회로 화려하게 마무리되었다. 3박 4일 동안 두 번의 무도회를 준비한 것은 대회 기간 내내 호감을 품었던 형제 자매와 마지막으로 우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한 준비위원회의 배려였다. 마지막 날 무도회는 특별히 광복절이라는 특성을 살려 풍선을 이용해 태극기 모양을 만들고 아리랑을 선곡하는 등 색다른 시도를 했다. 무도회의 복장 역시 독특했다. 옛 추억을 되살리는 '교복'이 그것이었는데 청년들은 학창 시절로 되돌아간 듯 재미있는 교복 패션을 선보이며 즐거워했다.

무도회는 단체 사진을 찍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고 그렇게 속리산 청년 대회도 끝을 맺었다. 사진 속 청년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3박 4일 간의 충실한 활동과 함께 나누었던 간증과 사랑이 그들의 얼굴에 미소를 새겼다. 속리산 청년 대회에 참석한 후기 성도 청년 독신 성인들은 그 기간 동안 "행복하게 살았[고]" 앞으로도 "행복할 것"이다. ■

〈기사 제공: 정유진 자매〉

복지의 기본원리 14 ABC

필요인가, 욕구인가

NEEDS & WANTS

우리는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1834년에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무릇 땅은 충만하고 거기에는 충분하여 남는 것이 있나니"(교리와 성약 104:17)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분께서는 인간의 속성도 바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파트리지 감독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그 가족에 따라, 그 형편과 부족과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그들의 몫을 정해 줄지어다"(교리와 성약 51: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개인별로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서로 다름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렇지만 엄마,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라고 자주 떼쓰곤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단순히 원하는 것과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현세적 필요

엘 톰 페리 장로님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글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페리 장로님이 정한 필요 사항의 순서는 1)음식, 2)의복, 3)거처, 4)연료입니다. ("성실함으로 할 것이니라",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참조) 우리는 페리 장로님이 말씀 제목으로 사용한 단어인 '성실함(simplicity: 단순함, 소박함)'에 주의를 기울일 만큼 현명해야겠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너무 복잡하게 살아서 수입 내에서 생활하고 빚을 지지 말라는 고대나 현대의 선지자들이 주신 권고를 따르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더 큰 주택, 수많은 가전제품, 더 사치스러운 차, 기차와 비행기의 편안한 좌석,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대형 텔레비전, 소형 음악 장비, 인터넷과 포켓 와이파이, 무수한 상표의 의류와 장신구 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록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지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정말 단지 음식과 의복, 거처, 연료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선지자의 권고

물론 근검 절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박한 삶을 살며, 이 곳 필멸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사치스런 삶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때때로 옳은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어제의 사치품이 오늘의 필수품이 되었다는 철학과 변명을 피하십시오. 사치품들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필수품이 아닙니다."("변하는 시대를 위한 변치 않는 진리", *리아호나,* 2005년 5월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 몬슨 회장님은 젊은 부부에게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부부들이 여러 대의 자동차와 그들의 부모가 평생 일해서 구입한 것과 같은 집에서 시작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봉급을 담보로 하는 장기 부채를 지게 됩니다. 변화가 생기고, 여성이 자녀를 갖고, 몇몇 가족이 병에 걸리고, 직장을 잃으며, 자연 재해와 다른 사정이 생겨서 두 사람의 수입으로 대출금을 더는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아마 너무 늦을 것입니다."(위의 책)

우리가 기본적인 현세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주님께서는 그분의 지혜 안에서 그분의 선지자를 통하여, 질병이나 실직, 불운, 자연재해, 서투른 재정 관리, 다른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셨습니다. 2011년은 교회 복지 프로그램 설립 75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선교사 시절 한 부인을 만났던 경험을 상고하면서,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장로는 "그 부인은 물질적인 도움이 절실했으나 내가 알기에 당시 스털링 시에는 그런 도움을 줄 만한 단체가 한 군데도 없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리아호나,* 2011년 5월호, "성결케 하는 복지 사업"에서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장로가 인용함.)

지난 75년 동안, 금식 헌금과 다른 기부를 통하여, 교회는 맥케이 장로가 만났던 그 부인과 비슷한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교회는 세계 곳곳에 있는 감독과 지부 회장들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연명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이 성스러운 기금을 집행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활 방식을 어느 정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겸손한 수혜자들은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감독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신을 통해 자신의 바람들 중 무엇이 실제적인 필요 사항인지, 무엇이 단순한 욕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감독과 와드 평의회는 함께 진실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

선교 사업을 준비하면서

지난 4월 나는 캘리포니아 산페르난도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MTC 입소 날짜는 9월 6일이었다. 나는 5개월이라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자고 다짐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성전 방문이었다. 나는 한 주에 두 번, 금요일에는 대리침례 집행을 돕기 위해 토요일에는 개인 의식을 받기 위해 성전을 방문했다. 성전에서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내 신앙은 날로 발전해갔다. 그러던 중에 BYU-하와이에서 주최하는 장학생 선발 오디션에도 참가하고 개인 콘서트도 여는 등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 후 나는 청년 대회에서 청년 합창단을 지휘하라는 부름을 받게 되었다. 합창을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나는 곡을 선정하고 편곡하는 과정에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등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했다. "이 청년 대회에서 당신께 드리는 저희들의 노래로 많은 이들이 행복하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합창 단원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청년 합창단은 '예수님 생각하오니'를 훌륭하게 노래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쉴 수 없었다.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아 국제 음악 콩쿠르에 참여했기 때문이었다. 피로 때문에 목이 아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었다. 콩쿠르 당일에는 다행히 목소리가 많이 돌아왔다. 나는 심사장으로 가기 전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기도했다. 그리고 무대에 서서 피아노를 잡는 순간, 따듯한 느낌이 나를 사로잡았고 한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노래했다. 결과는 남자 성악 부문 2위, 전체 성악 부문 4위였다.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이러한 모든 일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나는 이제 5개월여의 알찬 시간을 보내고 MTC로 향한다. 그 후에는 산페르난도 선교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앞으로의 시간들에 나는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

서울 남 스테이크, 봉천 와드, 김장환 형제

돈보다 값진 우정

김인규 형제(맨 왼쪽)와 친구들. 왼쪽부터: 김해수, 민동민, 조상우, 김일수, 박종화 형제

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 고등학교 때부터 같은 반이었던 내 친구들은 모두 침례를 받았다. 벌써 일 년 전의 일이다. 친구들은 나름 교회에 적응을 잘 하고 있었지만 개종자로서 힘들어 하는 모습도 보였다. 나는 친구들에게 영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에 마침 청년 대회가 열렸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나는 친구들에게 함께 갈 것을 권유했지만 모두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못 간다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친구들에게 회비는 내가 책임질 테니 함께 가자고 말해 버렸다. 잠시 고민을 하던 친구들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기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말을 해 버린 것이 조금 후회되기도 했다. 하지만 두 명의 친구와 함께 청년 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사실은 기뻤다. 문제는 돈이었다. 회비를 확인해 보니 무려 삼십칠만 오천 원이었다. 내게는 선교 사업 기금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이 있었다. 그 돈 중에서 사십만 원 가량을 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출이었지만 이 돈으로 친구들을 청년 대회에 보내고 그들이 그곳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거라는 생각을 하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 친구들은 청년 대회 기간 내내 즐겁게 지냈고 다른 회원들과 많은 우정을 나누었다. 나는 친구들에게 어땠느냐고 물어봤다. 돌아온 대답은 "정말 재미있었다"와 "또 오고 싶다"였다. 나는 정말 기쁘고 행복했다. 나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 나에게 행복을 주는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안양 스테이크, 안산 와드, 김인규 형제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국내 4명/해외 7명

김장환 장로
서울 남 스테이크
봉천 와드
캘리포니아
산페르난도 선교부

연수현 자매
강서 스테이크
목동 와드
부산 선교부

김준희 장로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도쿄 선교부

이서정 자매
서울 동 스테이크
길음 와드
대전 선교부

김하연 자매
인천 스테이크
만수 와드
로스앤젤레스 성전
방문자 센터

최명기 장로
부산 스테이크
연산 와드
시드니 선교부

박민지 자매
대구 스테이크
경산 지부
쿠모라 언덕 방문자
센터

최수환 장로
인천 스테이크
가정 와드
캘리포니아
산페르난도 선교부

석광현 장로
대전 스테이크
논산 지부
시드니 선교부

허동호 장로
창원 스테이크
도계 와드
일본 나고야 선교부

신현범 장로
광주 스테이크
충장 와드
부산 선교부

지역 소식에서는 성탄절 특집호인 12월호 *리아호나*를 준비하면서 회원 여러분의 간증과 사연을 모집합니다. 봉사에 대한 특별한 간증이나 경험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마감은 10월 15일까지입니다. 보내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량: A4 한 장(사진 첨부)
주소: 서울시 중구 신당6동 103-1번지 3층 전건우 형제 앞
메일: aron1979@hanmail.net(전건우 형제)
전화: 02)2232-1441(내선: 564)

새로 부름 받은 취업 선교사 부부

이상태 장로와 홍경자 자매 부부와 김백주 장로와 김은숙 자매 부부가 서울 취업 자원 센터에서 취업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권찬태 장로 부부의 뒤를 이은 두 부부는 2011년 8월부터 봉사를 시작했다.

이상태 장로는 스테이크 회장, 감독, 지방부 회장단 보좌 등의 부름을 역임했고 홍경자 자매는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 와드 초등회 회장으로 봉사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3남 1녀의 자녀가 있다. 김백주 장로는 감독, 선교부 회장단 보좌, 대제사 그룹 지도자로 봉사했고 아내인 김은숙 자매는 상호부조회 회장, 초등회 회장 등의 부름을 역임했다. 두 사람은 2남 1녀의 자녀를 가졌다.

이상태 장로는 "많은 회원들이 좋은 직장을 구해서 신앙 생활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김백주 장로는 "취업을 위해 어떻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교육을 하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상태 장로는 봉사와 부름에 대해 "최선을 다해 봉사한다면 주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이고, 저희의 작은 봉사로 주님 사업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간증했다. 김백주 장로도 "주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잘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라고 간증을 전했다. ■

왼쪽부터: 이상태 장로, 홍경자 자매, 김은숙 자매, 김백주 장로

정정 기사
2011년 9월호 지역 소식의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중에서 추윤아 자매님의 소속을 인천 스테이크 연수 와드로 정정합니다.